

조선 후기 燕行과 花卉의 文化史 *

李鍾默**

1. 머리말
2. 18세기 燕行과 花卉의 수입
3. 19세기 花卉 수입의 문화사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은 중국과 이른 시기부터 교류를 하면서 書冊이나 書畫 등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왔고 이에 대한 연구도 제법 축적이 되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양산되는 燕行錄을 검토할 때 조선의 문인들의 중국의 꽃이나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꽃과 나무의 교류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품종도 다양하였다. 新羅菊, 高麗菊 등의 명칭에서 보듯 신라와 고려의 국화가 중국에 전파된 바 있다.¹⁾ 또 忠肅王이 귀국할 때 원나라에서 특수한 품종의 국화, 모란, 瑞香花, 포도 등을 가져온 일이 있으며 세종 무렵에는 일본철쭉, 映山紅 등이 일본에서 수입되어 전역에 널리 퍼졌고 연산군은 대구모로 일본에서 철쭉과 영산홍을 수입한 바 있다.²⁾

* 이 논문은 201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1) 韓致齋의 『海東繹史』에는 이 외에도 중국 문헌에 보이는 荷包牡丹, 海石榴, 海紅花(海紅山茶) 등의 조선 품종을 소개한 바 있으며 躑躅, 曼陀羅花 등 조선 품종이 日本으로 건너간 것을 『和漢三才圖會』를 인용하여 소개한 바 있다.

그 후 중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가 빈번해지면서 중국 여행을 다녀온 많은 문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품종의 화훼가 적극적으로 수입되었다. 蘭花가 아닌 진짜 蘭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국에서 진짜 난초를 들여오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가짜 난초를 구입해온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된다. 한 예로 趙憲이 1574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기록인 『朝天日記』에 따르면 李季眞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난초 화분 둘을 구입하여 수레에 싣고 오면서 가끔 수레를 멈추고 완상하곤 했지만 조선에 이르고 보니 가짜였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李後白 역시 燕京에 갔을 때 비싼 가격에 좋은 난초를 구입해서 한양으로 가마에 태워 왔지만 난초가 아닌 맥문동이였다. 이에 비하여 柳夢寅은 1596년 중국에서 진짜 난초를 구입한 것을 크게 자랑한 바 있다.³⁾

선비의 상징인 매화 역시 좋은 품종이 중국과 일본을 통하여 조선 중기 수입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李廷龜가 1604년 명에 사신으로 갔다가 御史 熊化와 내기 바둑을 두어서 神宗이 감상하던 紅梅를 가져와 그의 집이 있던 館洞에 심어 萬曆梅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조선말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같은 해 승려 惟政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長崎와 薩摩 사이에 정박하고 있는 廣東의 상선으로부터 羅浮山 매화를 얻어온 바 있는데 이 매화 역시 靖陵에 재배되어 문인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⁴⁾

2)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譯解한 『養花小錄 -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아카넷, 2012)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또 徐居正의 〈謝姜晉山寄唐蔬十七首〉(『四佳集』 권40)의 서문에 따르면, 조선에 사신으로 온 명의 환관 鄭同을 통하여 龍瓜豆(강낭콩), 白扁豆(흰강낭콩), 寸金豆, 絲瓜(수세미), 苦瓜, 天茄(까마중), 大茄, 雲臺(유채), 薑蒿(쑥갓), 水羅蒿, 大白蘿蔔(나박무), 白菜(배추), 紫花菜(질경이), 滑藤菜, 芹葉菜, 芥菜(갓), 生菜(방귀아리) 등 17종의 종자를 수입하여 자신의 채소밭에 심었다고 한다. 화훼 외에 다양한 채소류도 조선 초기 수입되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3) 徐有槩의 『林園經濟志』에 따르면 난초는 줄기가 자색이고 가지가 흰색이며 마디가 적색이고, 잎은 녹색인데 마디와 마주하여 돋는 데 비하여 蘭花는 줄기가 없고 잎만 있으며 꽃은 향기가 아름답지만 잎에는 향기가 없다고 한다. 가짜 난초 수입에 대해서는 〈送聖節使書狀金大德序〉(『於于集』 권3)에 자세히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책에서 다루었다. 진짜 난초와 달리 맥문동은 잎을 꺾어 물에 넣으면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뿌리에 알이 달려 있다고 한다.

4) 중국에서 들여온 명품 매화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의 명품 매화 - 정릉 매화 300년의 역사』(『문헌과해석』 통권 49호, 2009. 12)와 『조선의 명품 매화-이정귀의 흥매』(『문헌과해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 사신을 통하여 새로운 품종의 花卉들이 수입되었다. 18세기 이래 花卉의 수입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존재는 金昌業이다. 김창업은 秋海棠과 繡毬花, 水仙花 등 새로운 품종의 花卉를 처음으로 소개하였거니와 1712년 사신 일행을 따라 중국을 다녀와서 『老稼齋燕行日記』를 저술하였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품종의 화훼와 관련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후 燕行錄에는 중국의 花卉와 花草鋪에 대한 기록이 자주 보이며, 이러한 영향 하에 18-19세기 여러 품종의 花卉가 수입되어 조선 문인의 정원을 꾸미게 되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18-19세기 燕行을 통한 화훼 수입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18세기 燕行과 花卉 수입

金昌業(1658-1721)은 서울 외곽 石串洞(松溪)에 東莊이라 이름을 붙인 별장을 경영하였는데 그곳에 山茶萸, 蓮, 山茶花(冬柏), 千葉石榴, 安石榴, 蘭花, 水仙花, 野薔薇(질레), 麗春花(虞美人), 牡丹, 芍藥, 山礬(七里香), 海棠, 木蓮, 薔薇, 玫瑰, 梅花, 杜鵑(진달래), 菊, 山躑躅, 蓼花, 秋海棠, 繡毬花, 辛夷花(붓꽃), 萱(원추리), 紫薇花(배롱나무), 瑞香花, 倭躑躅, 石竹花(패랭이꽃) 등의 꽃나무 외에도 다양한 채소과 과일, 약초, 관상수를 심었다. 그리고 이를 두고 하나하나 五言絶句를 지었다.⁵⁾

이들 중 대부분은 金昌業 이전에 조선에서 재배되었지만⁶⁾ 秋海棠과 繡毬花,

석』 통권 50호, 2010. 3)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5) 연작시에 등장하는 식물은 이들 외에 野椒, 櫟, 碧梧, 桑, 白榆, 黃榆, 樅, 檜, 圓柏, 側柏, 杉, 栗, 銀杏, 海松, 檜, 杞, 桐, 蒜, 韭, 楮, 葱, 水晶葱, 葫葱, 茄, 芋, 菠薐, 蒿苳, 菘, 芥, 甘露子, 蔓菁, 蘿菔, 薑, 番椒, 瓠, 芹, 瓜, 葵, 錢葵, 蓴, 苧蒿, 冬瓜, 南瓜, 槐, 芭蕉, 地黃, 香薷, 紫蘇, 荊芥, 芎藭, 薄荷, 澤瀉, 芫, 白芫, 蓼, 蘆, 菖蒲, 竹, 白竹, 山藥 등 도합 70종에 이른다. 김창업의 東莊에 재배한 식물에 대해서는 줄고, 『채소류 연작시와 조선후기 한시사의 한 국면』(『한국한시연구』 18, 2010)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6) 安石榴는 페르시아가 원산지인데 漢의 張騫이 중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養花小錄』에는 “俗以千葉不結實者, 謂百葉”이라 하였는데 百葉榴는 겹꽃이 피는 千葉 중에

水仙花 등은 金昌業의 글에 처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품종으로 추정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선화다. 김창업은 수선화를 두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은 대와 금 받침엔 티끌 하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꽃을 본 적이 없다지.
중국에서 구입할 때 값을 따지지 않는데
노가재가 호사가라 또한 자랑한다네.
銀臺金蓋絕纖瑕 東土何曾見此花
燕市購來不論直 稼翁好事亦堪誇
金昌業, 〈水仙花〉(『老稼齋集』 권2)

수선화는 중국 남방에서 나는데, 單葉을 水仙이라 하고 中葉을 五玲瓏이라 하며 특히 단엽의 水仙을 金蓋銀臺라 부른다. 김창업이 중국에서 비싼 값에 구입한 것이 單葉의 수선이었다. 김창업이 그 이전에 수선화가 조선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실제 조선시대 수선화를 직접 보고 언급한 사례는 金昌翁과 金昌業의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수선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87년 무렵 지은 시에서부터다.⁷⁾ 이 무렵 北京에 다녀온 지인을 통하여 거금을 들여 수선화를 구입하여 東莊에 재배한 듯하다.

繡毬花는 지금은 水菊이라 부르는 꽃이다. 繡毬花에 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이 바로 金昌業의 〈繡毬花〉(『老稼齋集』 권2)이다. 이 시의 주석에서 粉團이라

서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千葉石榴라 불렀다. 海石榴 혹은 海榴라고도 하는데 宋 謝維新의 『古今合璧事類備要』에 따르면 “亦有來從海外新羅國者, 曰海榴”라 하였다. 金昌業이 〈千葉石榴〉에서 “千百顆中無一結”라 한 대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丁若鏞은 〈竹欄花木記〉에서 “安石榴, 葉肥大而實甘者, 曰海榴, 亦曰倭榴”라 하여 해석류가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안석류 중에서 잎이 크고 두꺼우며 열매가 달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丁若鏞이 해석류라 한 것은 金昌業이 말한 것과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석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책에서 다루었다. 麗春花는 沈象奎의 〈壬辰六月初一日〉의 주석에 “麗春花, 俗謂楊貴妃花”라 하였다. 金時習 등 조선 초기의 시에 麗春花 혹은 虞美人이라는 제목의 시가 보이므로 늦어도 조선 초기에 존재하였던 꽃임을 확인할 수 있다.

7) 〈士敬乘月見訪, 示以詠早梅兩絕, 去後數日, 雪月益皎, 如此中, 梅花亦已發矣, 遂賦二絕, 追記前事, 且報梅發. 又詠新得水仙花一絕, 並寄求和〉(『老稼齋集』 권2)

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佛頭라 부르며, 立夏에서 芒種 사이 倭躑躅과 같은 때 핀다고 적었다. 중국에서 八仙花라고 부르는 이 꽃은 明清 이래 정원에서 많이 재배한 품종인데, 김창업의 시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중국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秋海棠 역시 김창업의 시에서 처음 보이는데, 中國 長江 이남에 자생하는 꽃이다. 美人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피어난다 하여 斷腸花라고도 하며 주로 모래를 담은 화분에 키운다. 金昌業의 문집에 秋海棠을 노래한 시가 세 편이나 있으므로⁸⁾ 이 꽃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秋海棠〉의 주석에서는 “중국에서 나왔고 성질이 음기를 좋아하여 햇살을 한 번 보면 바로 시든다.”⁹⁾라 하여 재배법을 함께 소개한 바 있다. 당시 희귀하여 재배법을 잘 몰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秋海棠을 처음 수입한 사람은 李健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18년 이전의 작품으로 보이는 趙正萬의 〈謝李台仲剛健命贈以玉盆秋海棠〉(『寤齋集』 권2)에 따르면 趙正萬은 李健命으로부터 이 꽃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였는데 李健命이 1698년 書狀官으로 중국으로 갔으므로 그 때 이 꽃을 구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趙正萬이 1718년 중국으로 가는 金昌業에게 시를 지어준 바 있으니 서로 절친한 사이였고 이견명 역시 세교가 있으므로 이 들로부터 김창업이 秋海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¹⁰⁾ 金昌翁의 조카인 金時保의 문집에도 추해당을 노래한 시가 있으므로 18세기 초반 중국에서 수입된 秋海棠이 문인들의 관심을 끌었음을 알 수 있다.¹¹⁾

이처럼 金昌業은 花卉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712년 北京으로 가면서 중국 정원을 장식하고 있던 花卉를 매우 주의 깊게 보았고 이를 『노가재연행일기』에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그의 식물에 대한 박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713년 2월 8일 馬維屏의 집을 찾아간 김창업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8) 〈偶吟〉(『老稼齋集』 권1), 〈訪族兄仲裕氏盛後求秋海棠〉(권2), 〈秋海棠〉(권2).

9) “自中原出來, 性喜陰, 一見日色卽悴”

10) 김창흡의 두 번째 시에서는 族兄 金盛後에게서 얻은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朴世堂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穉經增集》에는 玉簪花, 美人蕉 등과 함께 秋海棠을 분재에 심는 식물이라 하였으므로 박세당이 이 꽃을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穉經』 자체에는 이 기록이 없고 《穉經增集》이 박세당의 저술이라 확정하기 어렵다.

11) 1719년 일본으로 간 申維翰의 『海遊錄』과 1780년 중국으로 간 朴趾源의 『熱河日記』에도 이 꽃을 소개한 바 있다.

내가 “패랭이꽃(石竹)은 몇 가지 색이 있습니까? 황색과 남색도 있습니까?” 하니, 마유병이 대답하였다. “황색과 남색도 있습니다.” 내가 “석죽을 일명 洛陽景花라고도 합니다.” 하였다. 마유병은 “박학다식하심에 감탄했습니다.” 하였다. 내가 “어릴 때부터 화초를 사랑하여 몇 권의 화보를 보았고 한두 가지 화초 이름을 기억할 뿐인데, 어찌 많이 안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마유병이 “동서의 두 나라 사람이 부평초처럼 우연히 만났는데 또 가지가지로 서로 아끼게 되니 이는 정말 천고의 드문 일입니다. 본래 기이한 꽃과 대나무 들을 두루 찾아서 드리고 싶으나 지금은 그 계절이 아닙니다. 또 노야와는 쓰는 말이 달라 함부로 가볍게 내어 놓을 수 없어 일시에 다 보내 줄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다시 “김노야! 당신이 만약 다시 오신다면 사랑하는 묵화와 화초, 대나무를 미리 알려 주십시오.”라 하였다.¹²⁾

패랭이꽃은 김창업이 東莊의 식물 연작사에서 노래한 바 있는데 그 주석에서 홍색과 백색, 자색이 짙거나 옅은 차이가 있어 수십 종이라 하였다.¹³⁾ 김창업은 패랭이꽃의 다양한 품종과 명칭에 대해 花譜 등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었지만,¹⁴⁾ 자신이 보지 못한 종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다.¹⁵⁾ 패랭이꽃은 추해당, 수구화 등과 함께 가장 화려한 꽃 중 하나로 김창업 이래 조선 후기에는 관상용 식물로 각광을 받았다.

김창업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꽃을 완상하고 특히 중국에서 처음 보는 꽃을 보고 상세하게 기록하였다.¹⁶⁾ 중국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 꽃을 구경하고 구입하

12) “余問曰, ‘石竹有幾樣色? 黃的藍的亦有不?’ 維屏答曰, ‘黃的藍的也有.’ 余曰, ‘石竹一名洛陽景花?’ 維屏曰, ‘足見多學之徵, 拜服.’ 余曰, ‘從少性愛花草, 看過幾卷花譜, 記得一兩種名, 何足稱多學?’ 維屏曰, ‘東西二國之人, 萍水相逢, 又承種種眷愛, 此誠千古未有之遇也. 本欲搜羅異樣花竹相送, 怎奈今非其時. 又老爺異言不肯輕出, 恐一時不能相送.’ 維屏又曰, ‘金老爺, 你若再來, 凡有所愛墨畫與草竹, 務祈早說, 以便奉送.’” 이하에서 인용한 김창업의 연행록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참조하여 다듬었다.

13) “有紅白紫淺深之別, 數十種.”

14) 김창업은 중국에서 다른 문인처럼 서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거니와 특히 식물과 관련한 서적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1월 10일의 기록에는 『御製佩文齋廣群芳譜』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김창업은 주인에게 이 책을 한 갑씩 빌려와서 숙소에서 읽었다고 한다. 이 책은 康熙 47년(1708) 淸 汪灝 등이 康熙帝의 勅命으로 편찬한 식물에 대한 類書로, 100권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15) 패랭이의 별칭을 洛陽景花라 하였는데 다른 문헌에 이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 洛陽花라 하면 모란의 별칭으로 쓰이고, 간혹 패랭이 중에서 꽃잎이 천 개인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려 하였으며, 역관을 통해 여러 꽃을 수소문하여 구해 오게 하였다. 그가 구하고자 한 꽃은 모란, 난초, 수선화, 해당화, 蠟梅花, 瑞香花 등 다양하였다. 다음은 1712년 12월 21일 夷齊墓 인근 劉啓迪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의 기록이다.

당 앞엔 2, 3丈 떨어져 조그만 돌층계를 쌓고 위에 怪石을 놓아두었는데 모양이 흡사 우리나라의 水泡石과 같았다.¹⁷⁾ 괴석 옆에 진흙으로 덮어 놓은 것은 모란이라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모를 작은 나무가 있었는데, 探春花라고 한다. 꽃잎은 작지만 향기가 있으며 빛깔은 희고 2월에 핀다고 하였다. 담 밑에 玫瑰 두어 포기 있다. 瑞香, 수선, 난초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모두 없다고 대답하였다. 뒤이어 후당으로 들어가자고 권하기에 3중의 작은 角門을 지나 꼬불꼬불 돌아 제일 깊숙한 곳에 이르니, 3칸 집이 있고 동편에 방이 있는데, 방 안의 기물이 정결하였다. 남쪽 창 밑에는 迎春花¹⁸⁾ 두 그루가 화분에 담겨 꽃이 막 피고 있어 사람을 즐겁게 했다.¹⁹⁾

16) 김창업은 처음 보는 사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713년 1월 28일의 기록에 “내가 일찍이 우리나라의 연어와 방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것을 보려고 주방에 말하여 두었더니, 이날 비로소 구해 들어왔다. 연어는 껍질과 살결은 우리나라의 것과 방불하나 가는 가시가 많으며, 방어는 우리나라의 병어와 같으나 조금 긴 데다 민물고기들이다. 연어는 구워 먹는 것이 좋고 방어는 회를 치기에 좋다.”라 하였다. 김창업은 길을 가다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 사람을 시켜 알아오게 하는 등 식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7) 水泡石은 조경용 괴석으로 우리말로는 속돌이라 하며 浮石이라고도 한다. 白頭山의 산허리 위쪽이 모두 수포석으로 되어 있다는 『세종실록』의 「지리지」를 참조할 때 용암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17세기의 문인 李回寶의 〈水泡石記〉(『石屏集』 권5)에 따르면, 수포석은 주로 바닷가에 나는데 그 형상이 삐죽삐죽 산봉우리처럼 생기고 그 재질이 매우 가벼우며 구멍이 많이 나 있어 물이 통한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지방의 특산물로 소개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공물로 보낸 것을 보면 이른 시기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던 모양이다. 신위의 〈秋園雜詠〉(『警修堂全藁』 권12)에 “家家泡石峙盆山, 作對成雙花草欄。曩我亦曾隨俗好, 閒拋閑擲雨苔斑”라 한 것과 그 주석을 참조하면 붉은빛이 도는 보리의 일종인 鴈來紅, 울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薏苡 등과 함께 괴석을 화분에 심고 완상하는 풍조가 있었다. “민간에서 수포석을 채취하여 인공을 가하여 꼭대기에는 높다란 세 봉우리를 만들고 중간에는 푸른 잣나무가 자라게 하여 물을 담은 화분에 담가 뽀뽀하게 배열해 두면 자못 기괴하여 우아하게 감상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조경용 괴석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책에서 다루었다.

18) 영춘화는 개나리와 비슷하여 개나리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원래는 다른 식물이다. 관목으로 노란 꽃잎이 넷으로 갈라지는 개나리와 달리, 꽃잎이 여섯 개로 갈라지고 어린 줄기가 녹색을 띠며 3-4월에 꽃이 핀다. 『몽경당일사』 등 연행록에서 12월이나 1월에 이 꽃을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辛夷花라고도 하는 붉은 붓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모란이나 매괴, 영춘화 등은 조선의 것과 다름이 없었기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서향화, 수선화, 난초 등 조선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품종은 자세히 살피고자 하였다. 처음 본 探春花를 보고 그 생태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노가재연행일기』에 여러 차례 이 꽃에 대해 적었을 만큼 관심이 높았다. 김창업은 귀로에 다시 이를 보고 茶蘼花와 함께 이듬해 사행에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따로 부탁까지 하였다.²⁰⁾ 그밖에 2월 4일의 기록에는 西府海棠에 대해 적고 있다. 西府海棠은 김창업이 처음 본 나무였는데 가지와 줄기는 배나무 혹은 모과나무와 유사한데 꽃은 분홍으로 핀다고 하였다.²¹⁾ 또 2월 19일의 기록에는 중국인의 집을 묘사하면서 怪石, 石榴, 側柏, 柑子 등을 심은 화분과 함께 暢春花를 소개하였는데 野薔薇(절래)와 유사하고 잎이 品字 모양으로 생겼으며 아주 조그맣고 노란 꽃이 핀다고 하였다.²²⁾

김창업은 여러 품종의 蘭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2월 4일에는 西府海棠과 함께 藍蘭에 대해 자세히 적었다. 화분에 심겨져 있는 藍蘭은 蔓菁 싹과 유사한데 蘭蔓菁이라고도 부른다 하였다. 그 전날에도 馬維屏의 집에 가서 이름난 꽃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마유병이 草蘭을 가져왔는데 김창업은 이를 처음 보았기에 그 이름과 꽃의 색깔 등을 물어서 기록하였다.²³⁾ 그리고

다. 조선에서는 辛夷花가 붓꽃, 개나리, 木筆花(목련) 등과 혼동하여 일컬어졌다.

19) “堂前隙地數丈，築小砌置怪石，狀如我國水泡石。怪石旁有泥封之者，問之，乃牡丹也。又有一小樹，不知名，云是探春花。其花瓣小而有香，其色白，二月間開放云。牆下有玫瑰數叢，問瑞香水仙蘭草，答並無，因要我入其後堂，凡過三重小角門，灣曲行至最深處，有三間屋，東有室，室中位置清楚，南窓下置迎春二盆，方盛開，令人可喜。”

20) 탐춘화는 徐慶淳의 『夢經堂日史』에서 중국의 정원에서 보았다고 하였을 뿐 조선에 수입되지는 못한 듯하다. 茶蘼花는 酴醾라고도 적고 雪梅墩라고도 부르는데 宋의 曾慥가 韻友라 부른 운치 있는 꽃으로 4월 흰 꽃이 피는 장미의 일종이다. 고려 李奎報 이래 몇몇 시인의 시에 보인다. 徐居正의 <茶蘼>(『四佳詩集』 권12), 李睟光의 <月夜翫酴醾>(『芝峯集』 권2) 등이 이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바 있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21) 西府海棠은 李裕元의 <咏花史>(『嘉梧叢略』 5책)에 보이니 어느 시기인가 조선에 수입이 된 듯하다. 또 丁若鏞은 『雅言覺非』에서 우리나라에서 玫瑰를 海棠이라 잘못 부른다고 하면서 西府海棠을 소개한 바 있다. 『광군방보』 등 중국 문헌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정약용이 직접 본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22) 藍蘭은 우리 문헌은 물론 중국 문헌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조선에는 들어오지 못한 품종으로 추정된다.

建蘭을 보고 싶다고 하였는데, 마유병은 건란이 추위에 약하여 土室에 두어서 보이지 못한다고 하고 그 잎만 조금 잘라서 보였다. 김창업은 그 잎이 초란과 비슷하지만 조금 마르고 꽃꽂하다고 기록하였다. 建蘭은 중국 福建에서 자생하여 이름이 붙은 蘭花인데 조선에서 이에 대한 기록 자체도 『노가재연행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²⁴⁾ 宋 王貴學 『王氏蘭譜』에 建蘭이 소개되어 있고, 明 孫克弘의 『十竹齋畫譜』에 建蘭 그림이 보이므로, 김창업이 문헌을 통하여 알고 있던 建蘭을 직접 보고자 하여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이보다 앞서 김창업은 1월 10일의 李元英이라는 중국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蘭花가 있는지 묻고 구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이원영이 기후가 달라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 하였는데, 김창업은 자신이 그 전에 중국에서 난화를 구하여 꽃까지 피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미 한양에 있을 때 난화 재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듯하다.

1월 22일의 기사에 따르면 김창업은 瑞香花와 夾桃花, 蠟梅도 보고 싶다고 하였는데 불행히 마유병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서향화는 大寒에 피는 꽃이라 하여 蘭花, 山礬花 등과 함께 大寒三信의 하나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초하룻날에서 상원, 즉 정월대보름 사이에 피어나고 그 꽃이 붉게 피며 향이 강렬하여 10리까지 퍼질 정도다. 서향화는 충숙왕이 심양에서 가져온 꽃으로 李穡, 李崇仁 등의 시에 나타나므로 고려 말에 재배된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瑞香花를 읊은 시가 보인다. 다만 『양화소록』에는 이 꽃의 재배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리 흔한 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²⁶⁾ 夾桃花는 북

23) 황색꽃이 피는 난초인데 문헌에서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24) 申緯의 〈詠黃山尙書盆景〉(『警修堂全藁冊』 23책)의 주석에는 金迪根의 집에 建蘭이 있다고 하였다.

25) 김창업은 이보다 앞선 1월 22일 建蘭의 가격을 묻고 자신이 그 전에 구입한 난초를 보였는데 가짜라서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아, 김창업이 建蘭인줄 알고 잘못 구입한 듯하다.

26) 그런데 이 강한 향 때문에 조선에서는 丁香과 혼동을 일으켰다. 김창업의 〈서향화〉(『노가재집』 권3)에서는 서향화를 우리나라에서는 정향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金時習의 〈서향화〉(『梅月堂詩集』 권5)에서는 “紫蕤恰似丁香樹, 濃韻勝於簷蔔林”라 하였고 『양화소록』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하였으니, 그 모습이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켰고 나중에는 아예 정향을 보고 서향화라 부르게 된 듯하다.

송아꽃의 한 품종인 듯하지만 중국이나 우리 문헌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다. 蠟梅는 『양화소록』에 따르면 원래 매화의 품종이 아니지만 매화와 같은 시기에 피고 향 또한 매우 비슷한데 꽃이 꿀벌의 집과 비슷하여 이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²⁷⁾ 마유병은 자신의 집에는 없고 화초포에 가야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김창업이 蠟梅를 보지는 못하였다.

김창업이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 가장 관심을 기울인 꽃이 수선화였다. 1713년 1월 4일 당시 조선과 무역을 증개하여 거부가 된 중국 상인 鄭世泰가 활짝 핀 수선화 화분을 하나 가져 왔는데, 김창업은 매우 만족해하면서 자신이 그 전에 여러 번 수선화를 중국에서 사들였지만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김창업은 정세태로부터 받은 수선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꽃이 피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 김창업은 2월 3일 馬維屏이 蘇州에서 가져와 심은 鴨子口라 부르는 잎이 매우 짧은 수선화를 처음 보고 그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3. 19세기 화훼 수입의 문화사

金昌業의 『노가재연행일기』에서 화훼를 자세히 다룬 이래 그 후의 燕行錄에도 화훼에 대한 기록이 많아진다. 1765년 燕行의 기록인 洪大容의 『湛軒燕記』에도 北京 隆福寺 인근의 花草鋪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두어 인상적으로 묘사한 바 있다.

27) 지금 黃梅라고 부르는 품종과 흡사하지만 개화 시기가 달라 확인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이르는 蠟梅는 3종이 있는데 그 중 狗蠅梅는 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꽃이 작고 향이 담박한데 가장 낮은 품종이고 磬口梅는 접을 붙인 것으로 꽃이 활짝 피어도 늘 반 정도는 봉오리를 닫고 있는데 승려들이 사용하는 경쇠의 아가리처럼 생겨 이 이름이 붙었으며 개화 시기가 가장 빠르다. 또 檀香梅는 紫檀처럼 짙은 노란색 꽃이 피는데 꽃은 뽀뽀하게 피어나고 향은 진하며 가장 좋은 품종으로 평가된다. 조선에서는 밀랍으로 만든 매화를 납매라 불렀다. 李德懋는 벌꿀의 밀랍으로 매화꽃을 만들고 매화나무 가지에 얹어 맨 다음 오래된 화분에 심어서 서안 위에 올려놓았다. 이를 輪回梅라 하고 이를 두고 쓴 시문을 모아 『輪回梅十箋』이라는 책을 만든 바 있다.

화초포는 용복사 동쪽 1리 정도에 있다. 정월 12일 가서 보니 모두 움집을 짓고 각종 화분들을 넣어 두었는데, 위는 밝은 창문을 통하게 하였고 아래는 온돌을 만들어 두었다. 그 안에 들어서면 봄기운이 완연하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차서 화초들이 모두가 퐁퐁 얼어붙었지만, 이 조그만 움집 속만은 딴 세상을 이루어 붉은 꽃과 흰 꽃들이 서로 어리비치니, 또 하나의 색다른 풍경이다. 모란, 작약, 수선, 해당, 홍매, 백매, 석류, 월계 등 없는 것이 없다. 대개가 큰 부잣집의 관상용으로 팔리는 모양인데, 사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어질 새가 없으니 이익이 많은 것을 알겠고, 풍습이 사치를 좋아하는 것도 짐작이 간다. 서쪽에 방 하나가 있는데 더욱 넓다. 수십 개의 화분에 꽃과 나무를 기르는데 푸른 잎이 그늘을 덮고 있다. 이를 마주 하니 더욱 상쾌하다. 대개 중국의 풍속이 석류를 가장 좋아하고 월계화가 다음이다. 봄이 저물 무렵이면 인가에서 꽃을 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으면 화분이 40-50개에 이른다. 정월에 줄지어 두고 있는 것 가운데 석류가 3분의 1쯤 된다. 해당화는 우리나라 山丹花와 흡사하지만 색깔이 담홍색이며 꽃잎이 조금 크다. 수선화는 뿌리가 무처럼 생겼고 줄기가 파처럼 생겼으며 꽃은 원추리 같은데 희며 약한 향이 난다. 봉오리가 터지기 전엔 모두 아래로 수그리고 있다가 터질 무렵이 되면 평상시처럼 일어서게 되므로 중국 사람들이 진귀하게 여긴다.²⁸⁾

홍대용, <花草鋪>(『湛軒書』 외집 권9)

북경에서 본 한겨울 온실의 다양한 꽃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무렵의 燕行錄에는 겨울철 화훼를 관리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金正中의 『燕行錄』(1791년 12월 21일)에는 겨울에 얼어 죽기 쉬운 모란을 관리하는 법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서리가 내린 후 새끼를 단단히 매어 싸고 황토에 보릿짚과 말뚝을 섞어서 위아래로 발라서 바람이 새어 들지 않게 하였다가 봄날 따뜻한 때가 되어 봉한 것을 트고 새끼를 풀면 구덩이에 묻은 것보다 도리어 낫다고 하였다.²⁹⁾

28) “花草鋪在隆福寺東里許. 正月十二日往見, 皆築土室, 藏各種花盆, 上通明窓, 下爲溫炕, 入其中盎然有春意. 時雪天風寒, 百卉凍瘵, 獨此半畝土室, 裝成別界, 紅白交輝, 亦一異觀也. 如牧丹芍藥水仙海棠紅白之梅石榴月桂諸種, 無不有. 盖用供豪富家玩好, 而買者亦相續, 可占其利之饒贏, 亦可見習俗之侈靡也. 西有一室, 益弘敞, 數十盆卉樹, 綠葉布蔭, 對之益爽然也. 盖華俗最重石榴, 月桂次之, 春晚見人家花種, 多或四五十盆, 列置階庭, 石榴居三之一. 海棠酷似我國山丹花, 但色淡紅而瓣稍大, 水仙根如蘿菔, 莖如葱, 花類萱而白, 有微香, 蓓蕾未綻者, 皆折而下垂, 欲綻則必伸立如常, 華人所珍也.”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르되 자구를 수정하였다.

29) 朴趾源 역시 중국에서 본 화훼에 대해 자세히 적었다. 『熱河日記』(1780년 6월 27일)에는

중국 화초포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朴思浩의 『心田稿』(권2, 1828년)에도 <花草鋪>를 별항으로 두고 隆福寺 동쪽에 있던 세 곳의 화초포를 다루면서 桃花, 杏花, 梅花, 桂花, 映春, 水仙, 千秋, 茉莉, 石榴, 橘柚, 海棠, 柳, 竹, 櫻欄, 仙人掌, 金蘭, 玉簪花 등을 소개하였다.³⁰⁾ 金景善의 『燕輶直指』(1832년 12월 26일)에도 <花草鋪記>가 실려 있는데 北京의 鴻臚寺 인근에 있는 花草鋪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온실에서 재배되는 牡丹, 芍藥, 水仙, 海棠, 紅白梅花, 月桂, 石榴, 梔子, 石竹, 金蘭, 玉簪, 櫻欄, 丁香 등 다양한 품종을 두루 소개하였다. 또 徐慶淳은 『夢經堂日史』(1855년 12월 19일)에서 花草鋪를 구경하고 온실에서 재배하는 佛手花, 天竹花, 水仙花, 牡丹花, 良薑花, 橘柚花, 桃花, 梨花, 梅花, 杏花, 延祥花, 探春花, 迎春花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18세기 이래의 연행록에서 이처럼 화훼에 대해 높은 관심이 보이는 것은 당시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별열가의 화원 가꾸기 열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8-19세기 조선의 정원은 다양한 꽃으로 장식되었다.³¹⁾ 특히 19세기 문인들의 화훼에 대한 취향은 가을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과 화려한 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申緯는 1825년 <秋園雜詠>(『警修堂全藁』 12책)을 지어 鴈來紅, 盆菊, 蕙苳, 怪石을 노래한 바 있고, 1832년에는 자신의 정원에서 재배하던 가을꽃을 두고 <園中秋花十四詠>(『警修堂全藁』 19책)을 지었는데 繡毬花, 秋海棠, 石竹花, 玉簪花, 鼓子花, 鷄跖花, 鷄冠花, 剪秋羅, 紅蓼, 蘆花, 秋

鄂氏의 집에서 본 풍경을 두고 “오이와 박 덩굴을 올린 시렁이 착잡하게 뜰을 덮고, 울타리 가에 붉고 흰 蜀葵花와 玉簪花가 방금 한창으로 피었으며, 처마 끝엔 石榴 몇盆, 繡毬 한분, 秋海棠 두분이 심어져 있다. 주인 鄂君의 아내가 손에 대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차례로 꽃을 따다. 아마 저녁 化粧에 쓰기 위해서이리라.”라고 묘사하였다.

30) 千秋花는 어떤 꽃인지 알 수 없다. 茉莉花는 尹根壽의 『月汀漫筆』에 보이는데 1589년 북경에서 처음 보았다고 하였지만 우리 문헌에 잘 보이지 않으므로 수입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櫻欄은 연산군 때 일본에서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金成一이 1591년 일본에 다녀오면서 石菖蒲와 櫻欄 화분을 싣고 왔다고 한다. 17세기 이후에는 黃蓀, 李玄錫, 洪良浩 등의 집에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이 그들의 문집에 보인다. 仙人掌은 燕行錄과 海槎錄에 보이지만 조선에 들어오지는 않은 듯하다. 金蘭도 우리 문헌에 잘 보이지 않는다.

31) 18세기 화훼에 대한 열풍은 정민의 <18-19세기 문인 지식층의 원예취미>(『한국한문학연구』35, 2005)에 잘 정리되어 있다.

牡丹, 藕豆花, 牽牛花, 苦蕒 등 14종의 가을꽃을 노래하였다. 沈象奎가 1832년 무렵 제작한 <雜咏秋園花卉三十首>(『斗室存稿』 권4)에서 老少年, 鳳仙, 玉簪, 萱花, 石竹, 牽牛花, 蓼花, 鷄冠, 秋海棠, 向日葵, 黃菊, 白蓮, 菖蒲, 芭蕉, 棉花 등을 노래한 것을 나란히 보면, 이 시대 가을꽃을 가꾸는 秋園이 유행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³²⁾

이러한 연작시에 보이는 품종 중 대부분은 19세기 이전 조선의 정원에 있던 것이지만 가을꽃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연작시의 형태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은 이 시기 꽃의 문화사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繡毬花, 秋海棠, 雁來紅 등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뿐만 아니라 石竹花, 鼓子花, 藕豆花, 牽牛花 등 그 전 시기에 있었지만 19세기 무렵에는 이들이 새롭게 정원을 장식하는 완상용 꽃으로 등장하였고 시인은 이를 다투어 시로 형상화하였던 것이다.

繡毬花, 秋海棠 등도 金昌業의 시대에 이미 조선에 들어왔던 품종이지만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가 18세기 말엽 다시 중국에서 수입되어 가을 정원을 장식하는 꽃으로 각광을 받았다. 繡毬花의 경우, 朴允默은 “소주와 항주 남쪽 땅에서 나는 꽃인데,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 60년이라(南產蘇杭界, 東來六十年)”라 하였다.³³⁾ 박윤묵의 이 시는 1829년 무렵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1770년 무렵 중국에서 繡毬花가 수입된 것으로 본 것이다. 繡毬花를 다룬 시는 김창업 이후 1817년 지은 申緯의 <園中秋花十四詠>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도 이 무렵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한양 벌얼가의 정원에 재배되었기 때문이다.³⁴⁾ 또 <霖雨省下

32) 『警修堂全藁』의 주석에 따르면 老少年은 老來小, 赤莧, 雁來紅이라고도 부르는 색비름이다. 海槎錄에 주로 보이므로 일본을 통하여 수입된 품종으로 추정된다. 鼓子花는 纏枝牡丹(넉출모란)으로 旋花라고도 하는데 민요에 나타나는 山花兒娘이라는 것이 이 꽃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香娘의 <山有花歌>와 관련이 있는 듯하지만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지봉유설』에는 菝(메밀)이라 하였는데 조선 후기 鼓子花와 맞지 않다. 向日葵는 戎葵, 蜀葵 혹은 黃葵라고 하는데 해바라기를 가리킨다. 棉花는 花桃花라고도 하는데 목화꽃을 이른다. 중국에서 열매를 맺지 않고 꽃만 피는 花桃와는 다른 품종이다. 鷄跖花는 중국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데 『廣才物譜』에는 ‘닭의십갑이’라 하였다. 藕豆花는 강낭콩으로 扁豆花라고도 한다. 牽牛花는 나팔꽃으로 冷翠花라고도 한다. 苦蕒은 野菊을 이른다.

33) 朴允默의 <詠繡毬花>(『存齋集』 권8).

34) 申緯는 朴耆壽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였다.

晩退行視園圃有作)에서는 “수구화 곁의 추해당(繡毬花伴海棠秋)”라 하였으니 秋海棠과 나란히 화분에 올려두고 감상하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秋海棠 역시 李健命을 통하여 金昌業 등에게 전파되었지만 이후 문헌에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이 역시 단절되었다가 다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朴齊家の <院畫花卉襍題應令>(『貞麤閣集』 권2)에 秋海棠이 등장하므로 18세기 후반 궁중 화원들의 그림으로까지 秋海棠이 오를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³⁵⁾ 또 申緯의 <園中秋花十四詠>과 <次韻墨農秋十詠>으로 보아 19세기 전반에는 秋海棠이 대표적인 가을 정원의 꽃으로 대접을 받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剪秋羅, 秋牡丹 등도 19세기 정원에 자주 나타나는 새로운 품종의 꽃이다. 剪秋羅는 漢宮秋色이라 부르는 꽃인데 正祖가 “북경의 대갓집, 집집마다 전추라(燕京中貴家, 家家剪秋羅)”(<剪秋羅>, 『弘齋全書』 권1)라 한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수입한 품종이 분명하다. 金壽恒의 시에 “작은 섬돌 떨어지는 꽃은 전추라라네(小階花落剪秋羅)”라 한 것으로 보아 17세기 무렵 조선에 수입된 듯하지만³⁶⁾ 沈象奎의 <漫書三絕句再付李君收之>(『斗室存稿』 권3)에서 전추라가 추해당, 옥잠화 등과 함께 나란히 시의 소재가 된 것을 보면 19세기 무렵이 되어서 명가의 정원에 두루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秋牡丹은 당구화(唐菊花)라고 하는 꽃인데 오늘날은 괴꽃으로 부른다. 명칭으로 보아 중국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는데³⁷⁾ 이 역시 19세기 무렵 문인들의 관심을 많이 끈 품종이다. 白牡丹도 19세기 크게 사랑을 받은 꽃이다. 申佐模에

35) 여기에 등장하는 꽃으로는 四季花, 蜀葵, 鴛粟花(양귀비), 酸蔣(파리), 月月紅(月季花), 石竹, 菊, 芭蕉, 菘菜, 鷄翅, 繡菊, 萱花, 西菴, 零陵香(薰草), 勺藥, 芝艸, 琅玕, 蓼花, 蒲, 雞冠, 夜合(合歡) 地盆(地盆子), 假荔芝, 月桂, 杜鵑, 山菊, 淡竹, 匏花, 雁來紅(赤莧), 鳳仙花, 秋海棠, 水仙, 柰花, 佛手柑, 番椒, 蔓菁, 玉簪花, 石榴 등이 있는데, 申緯나 沈象奎의 시에 나오는 품종이 많다.

36) <太白山僧法性沙彌信行袖其師詩卷來示, 余之舊題亦在其中, 撫跡感懷, 復次其韻以贈>(『文谷集』 권6).

37) 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唐菊辨證說>에서 唐菊의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명칭으로 보아 중국에서 온 듯하지만 중국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꽃은 5-6월부터 9월까지 피고 紅, 白, 紫 3색이 있으며 單葉과 千葉의 품종이 따로 있다고 하였다. 또 이규경은 柳本學은 繡菊라 하였고 丁若鏞은 錢葵라 하였으며 李書九는 秋海棠이라 하여 그 설명이 모두 달랐다고 한다.

따르면 李德洞이 1624년 奏請使로 북경에 갔을 때 白牡丹을 구해왔는데 이때부터 조선에 백모란이 퍼지기 시작하였다고 하니,³⁸⁾ 비교적 이른 시기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申緯의 벗 鄭祖榮이 백모란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다른 벗 尹謙基가 신위의 집에 鄭祖榮를 붙잡아 두고 하인을 시켜 담을 넘어 그 꽃을 훔쳐내게 한 고사가 생길 정도로 19세기에 와서 큰 인기를 끌었다.³⁹⁾

가을꽃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국화 역시 다양한 품종이 이 무렵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강희안의 『양화소록』에는 조선에 20종의 국화가 있다고 하였는데 김정희의 <보내준 국화에 감사하다(謝菊)>(『阮堂全集』 권10)를 보면 “163종이나 되는 품종이 많기도 하건만, 끝내 학령이 여러 국화 중에 첫째라네.(百六十三多品第, 鶴翎終竟出群雄)”라 한 대로 163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품종의 국화 중에 상당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徐有渠의 『林園經濟志』에는 <東國菊品>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 당시 조선에서 재배되던 국화를 기록하였는데 甘菊, 黃鶴翎, 白鶴翎, 紅鶴翎, 大雪白, 烏紅, 禁苑黃, 醉楊妃, 倭黃, 倭白, 老人紅, 通州紅 등 다양한 이름이 보인다. 여기서 倭黃, 倭白은 명칭에서부터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임을 알 수 있고⁴⁰⁾ 通州紅은 중국 通州에서 가져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⁴¹⁾

김정희의 시에서 보듯 조선 후기 가장 사랑을 받은 국화는 중국에서 들여온 鶴翎이었다.⁴²⁾ 학령이 처음 우리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초반 무렵이다. 金昌翁의 시에 따르면 仁王山 아래 靑楓溪에 있던 藏洞金氏의 정원 洗心臺에 백

38) “竹泉公朝天之行, 載白牡丹而歸, 理安家至今植舊本. 東土之有白牡丹始此.” 申佐模, <復疊呈理安鶴南二先生>(『澹人集』 권8). 그러나 李瑀의 <一梅軒賞紅白牡丹>(『玉山詩稿』)에 따르면 權譜仲의 一梅軒에 백모란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39) “貴儼前爲尹伯溫之居, 伯溫曾有白牡丹一窠, 秘栽庭後而奇愛之. 一日子承於敝齋, 留伯溫飲, 密絕家僮於垣, 規取牡丹, 伯溫追覺大恨.” 申緯, <聞子承修掃水橋宅復用前韻簡寄>(『警修堂全藁』 책4). 李裕元의 『林下筆記』(권32)에도 백모란이 매우 희귀하다면서 이 고사를 소개하고 있다.

40) 沈能淑의 <白雲朶記>에 보이는 일본 품종 白雲朶가 가장 인기를 끌었음은 여러 논문에서 밝혀진 바 있다.

41) 金景善의 『燕轅直指』에는 중국의 花鋪에서 판매하는 通州白, 通州紅을 소개한 바 있다.

42) 朴趾源의 『熱河日記』 등 燕行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화 품종이 鶴翎이다.

학령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陶淵明도 보지 못한 특별한 품종이라 하였다.⁴³⁾ 이후 李瀾, 趙顯命 등 18세기 문인의 시에 백학령이나 황학령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19세기 무렵에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부각되었다.⁴⁴⁾

중국이 원산지인 凌霄花가 조선에 유입된 것도 19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임하필기』에는 鄭弘淳이 北京에서 凌霄花를 가지고 와 심었는데, 몇 년 동안 뻗으면서 자라 소나무 사이까지 퍼졌다고 적었다.⁴⁵⁾ 金藤花, 紫葳, 女葳, 陵苕 등으로도 불리는 이 꽃은 실제 우리 문헌에 18세기 이후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⁴⁶⁾ 또 曼陀羅花라 부르는 꽃은 일본에서 朝鮮牽牛花라 불리는데 『해동역사』에는 『화한삼재도회』를 인용하여 이 꽃이 근래에 조선에서 들어왔다고 하였다.

특히 19세기 문화사에서 가장 주목을 요하는 꽃은 水仙花다. 수선화 역시 김창엽 이후 단절되었다가 19세기 무렵 다시 수입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수선화를 조선에 처음 들여온 사람은 金昌業이었지만 19세기 문인들은 자신의 시대 처음 조선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였다.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水仙花辨證說〉이 실려 있는데, 이 글에서 수선화가 조선에서 명성을 떨친 것은 불과 수십 년 전이라 하였다. 徐敬德은 수선화를 알지 못하여 黃庭堅의 시 〈水仙花〉를 옳게 해석할 수 없었다고 하고, 車天輅 역시 수선화를 어떤 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五山 역시 수선화가 어떤 꽃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가 일본에 갔을 때 10월에 돌아오는 풀 하나를 보았다. 잎은 假蘭과 유사한데 길이는 몇 尺 정도이고 11월에 꽃이 성대하게 흰 빛으로 피었다가 12월에 졌으며 정월에 시들고 2월에 죽었다. 일본 승려에게 물어보고 수선화인줄 알았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예전에 수선화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 아니다.⁴⁷⁾

43) “鶴翎霜藥未摧殘, 迥接天風姑射寒. 彭澤荒籬無此菊, 洗心臺下月中看.” 〈十月十五夜與士敬宿洗心臺〉(『三淵集』拾遺 卷4).

44) 조선후기 국화가 성황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필자가 역해한 『양화소록』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45) 그런데 鄭弘淳은 북경에 간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접 가져온 것은 아닌 듯하다.

46) 『임하필기』에는 1776년 북경으로 간 金致仁이 映山紅을 구해와 집에 심어 映山紅家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하는 기사와 함께 이 꽃에 대해 나란히 적고 있다.

47) “五山亦未知水仙之爲何花, 入日本也, 見一草十月始生, 葉如假蘭, 長數尺, 十一月花盛色白,

水仙은 18세기 이전 문헌에 등장하지만 중국 시문을 통하여 안 것일뿐 실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무렵 김창업 주변의 인물이 수선을 처음으로 수입하였지만, 널리 퍼지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 다시 조선에 수선화를 들여온 사람은 李基讓이었던 듯하다. 〈水仙花歌復次蘇韻〉(『다산시문선』 권4)에 따르면 1800년 봄 李基讓이 북경에서 돌아오면서 수선화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⁴⁸⁾ 정약용이 그로부터 한 뿌리를 얻어 심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秋晚金友喜香閣寄水仙花一本其盆高麗古器也〉(『다산시문집』 권4)에서도 “복암이 사신의 수레에 실어 오셨고, 추사께서 이제 대동강 관아에다 옮겨 심었다지(菝老曾携使車至, 秋史今移泃水衙)”라 하였으니, 이기양이 중국에서 수입한 후 대동강 일대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李學濂 역시 비슷한 사실을 시에 담았다.

행장 꾸린 이참관이여
 嫦娥의 시녀 같은 신선의 꽃을,⁴⁹⁾
 지난 해 여럿 가지고 와
 오늘 서울에 두루 퍼지게 되었네.
 마노 화분에 곱게 피었으니
 金盞銀臺의 면목이 생겨났지.
 荀彧의 자리가 없더라도
 기이한 향 함께 함을 거듭 보겠네.
 行行李水部 仙葩梁玉清
 向時餘種子 今日遍京城
 瑪盃菁華在 銀臺面目生
 無由荀令席 重見異香并
 李學濂, 〈感事三十四章〉(『洛下生集』 책18)

이 시의 주석에 따르면 1799년 李基讓이 賀正使로 北京에 가서 수선화 뿌리를 들고 왔다고 하였다. 또 수선화를 李家煥의 집 책상 위에 놓인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⁵⁰⁾

十二月衰落, 正月枯, 二月摧死, 問諸倭僧, 知爲水仙花, 則予云古無聞者, 非臆斷也.”

48) “庚申春, 菝庵李公回自燕京, 金繒無所私, 唯帶水仙花一根, 插之盆水, 余與少陵環坐賞玩, 流落以來, 朔南遼冀, 而此花亦已槁矣. 感念疇昔, 惻然有述.”

49) 袁宏道の 『瓶史』에 水仙을 嫦娥의 侍女 梁玉清에 비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申緯는 자신이 처음으로 수선화를 조선에 들여왔다고 주장하였다.

식량 운반하는 사람 한가하여 꽃까지 운반하였으니
 눈 내릴 때 수레에 실려 와 시인을 배부르게 하였네.
 뉘 알리오, 凌波仙자의 고운 발걸음이
 처음 자하옹의 사신 행차를 따라 올 줄을.
 運餉手閑且運花 雪天飛輓餉詩家
 誰知仙子凌波襪 始逐霞翁貫月槎
 申緯, <謝篠齋運餉寄水仙花>(『警修堂全藁』 冊14)

이 시의 주석에서 申緯는 1812년 겨울 北京에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수선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조선에 수선화가 들어온 시초라 하였다.⁵¹⁾ 『임하필기』에도 申緯가 1812년 처음 수선화를 들였다고 하였지만, 시기로 보면 李基讓보다 12년 뒤의 일이니, 19세기 수선화 수입의 시초는 이기양의 공으로 돌려야 할 듯하다. 다만 李基讓이 가져온 것이 널리 퍼지지 못하여 申緯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²⁾

이 무렵부터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투어 수선을 구입해온 것으로 보인다.⁵³⁾ 이렇게 하여 19세기 무렵 조선에는 수선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실제 18세기 후반 무렵 한양의 명문가에서는 대부분 수선을 화분에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丁若鏞의 <竹欄花木記>(『茶山詩文集』 권14)에 따르면 明禮坊 자신의 집에 海榴(倭榴), 棱杖榴, 花石榴, 梅花, 梔子, 山茶, 金盞銀臺, 芭蕉, 碧梧桐, 蔓香, 菊花, 芙蓉 등의 화훼를 화분에 키웠다고 한다.⁵⁴⁾ 여기서 金盞銀臺는

50) “健陵己未, 李參判基讓以賀正使, 自燕京得水仙花種以來”, “始見此花於錦帶館書案頭.”

51) “壬申冬, 余使燕回, 携水仙花, 此爲水仙東來之始, 自後出來.”

52) 申緯는 수선 재배에 실패한 듯한데, 申緯의 <水仙花三絕句爲黃山樞密賦>(『警修堂全藁』 冊10)에는 金卮根으로부터 다섯 뿌리를 얻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謝徐篠齋吏部分餉水仙花十本>(『警修堂全藁』 冊18)에서도 徐淇修에게서 열 포기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53) 金祖淳도 북경에 다녀오면서 수선을 가지고 온 모양이다. 沈象奎의 <次韻楓臯>(『斗室存稿』 권1)에 따르면 수선화 다섯 뿌리를 김조순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4) 倭榴는 安石榴 중에 잎이 살지고 두꺼우며 열매는 단 품종으로 海榴라고도 한다. 또 능장

가장 아름다운 품종인 單葉의 수선화이니 丁若鏞 역시 이 꽃을 사랑하여 네 개의 화분에 재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김정희의 시 〈年前禁水仙花〉(『阮堂全集』 권10)의 제목을 보면, 당시 지나친 수선화 수입 열풍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임하필기』에는 1812년 申緯에 의하여 처음 수선화가 들어온 이래, 6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수입되었는데, 1834년 이후 북경에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 물품 조목 속에 수선화가 포함되어 수년 동안 수입되지 못하다가 그 뒤로 차츰 금령이 느슨하여졌다고 한다. 이 정도로 수선화 열풍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무렵이 되면 張混, 南公轍, 金正喜, 金祖淳, 金鑣, 申緯, 朴允默 등 수많은 문인의 시에 수선화가 등장한다. 그리고 다음 시를 보면 수선화가 그림으로 그리지는 풍조까지 생겨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고상한 선비는 원래 담박한 꽃 사랑하니
 梅兄과 좋은 짝되어 그 그림자 비껴 있네.
 이름난 종이에다 한 뿌리 그리고 싶으니
 붓 끝에 향기가 구름과 노을 위에 그득하네.
 高士元來愛澹華 梅兄好伴影橫斜
 欲把名牋摹一本 毫端香氣蔚雲霞
 南公轍, 〈수선화(水仙花)〉(『金陵集』 권4)

이보다 앞서 朴齊家の 〈院畫花卉禱題應令〉(『貞齋閣集』 권2)에 18세기 후반 궁중 화원들의 그림에 수선화가 등장하며 沈象奎의 〈次韻南元平送示兩帖〉(『斗室存稿』 권1)에는 吳禔의 수선화 墨畫가 조선으로 들어왔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선화는 19세기 무렵 梅花와 함께 대표적인 淸供의 화훼로 인식되었다.

류는 一丈 남짓한 키에 겹가지가 없고 위쪽이 둥그스름한 석류 품종이다. 蔓香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눈향나무로 萬年松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화분에서 재배하였다. 山茶는 冬柏을 가리킨다.

55) 유순영의 「명대후기 강남지역의 화훼원에취미와 화훼도관」(『미술사연구』 26호, 2012)에서 명말 강남 지역의 화훼 취미와 이를 그린 그림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18세기 이래 조선의 화훼 열풍과 화훼도 제작에는 이러한 명말 강남의 움직임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沈象奎의 〈竹石清覽〉(『斗室存稿』尺牘)에는 “수선화는 지극히 우아한 감상에 적합하고 또 한가한 소일거리니 매우 기를 만하다.”고 하였다.⁵⁶⁾ 申緯의 〈碧蘆舫清供圖自題〉(『警修堂全藁』冊10)에 소나무, 대나무, 매화, 괴석과 함께 수선화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즐긴 것도 수선화가 새로운 淸供의 소재였음을 확인하게 한다.⁵⁷⁾

중국에서 수선화를 수입하여 즐기는 열풍이 강해지면서, 김정희 등 제주로 유배를 간 사람들이 제주에서 수선화가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李圭景의 〈水仙花辨證說〉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본디 수선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에서 자라는데 사람들이 어떤 식물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근자에 北京에서 구입하면서 이에 민간에서 숭상하게 되었다. 민간에서 숭상함에 따라 제주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비로소 수선화를 알아보게 되었고 씨앗을 들고 바다를 건너 한양에다 두루 퍼지게 되었다. 제주에서는 민간에서 水蒜이라고 부르는데 뿌리와 잎이 마늘과 비슷하고 물에서 잘 자라므로 그러한 것이다. [제주에서 온 것은 끝내 북경에서 온 것만 못하다. 이는 풍토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경 품종과 제주 품종이 세상에 나란히 성행한다. 겨울이면 자기 화분에 물을 채우고 수선을 담가둔다. 호남의 扶安 彩石江에서 나는 彩石을 가지고 그 뿌리를 눌러주면 한 점 흙이 없어도 자라난다. 매화와 함께 꺾는다. 꽃이 지고 나면 물에서 꺼내 햇볕에 말렸다가 벽에 걸어두고, 다시 심고 싶으면 전처럼 물에 담가두면 다시 살아난다. 정말 기이한 품종인데, 남쪽 땅에서 자라면서 추위를 견뎌낸다.]⁵⁸⁾

李圭景은 수선화가 18세기 후반 무렵 북경에서 수입하면서 조선에 크게 유행하였는데 나중에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수선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李裕元의 『林下筆記』(권32)에 따르면 제주에서 자생하는 수선화는 金正喜가 처

56) “水仙極叶雅賞，且爲閑消，可荷可荷。”

57) 〈家有逸齋寫生八幀，絹色傅彩，似是明季人，考之圖繪寶鑑，寶繪錄，畫徵錄諸書，皆不見焉。余在象山時，裝爲護頭小屏，今各系一詩以埃考〉(『警修堂全藁』冊14)에 따르면 逸齋라는 明末의 화가가 그린 수선화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다.

58) 我東非本無也，生於耽羅，而人未知爲何物也。近者自燕購來，仍爲俗尙，以其俗尙，故入耽羅者，始知水仙，而將種渡海，遍于京師。羅俗呼以水蒜者，根葉類蒜而好生於水故也。[自耽羅來者，終不如自燕來者，此因風土之殊也。燕種羅種並行於世，冬月以磁盆盛水，沈水仙，以湖南扶安縣彩石江彩石片，鑲其根，雖無點土亦生。與梅花伴開，花謝出水曬乾，懸于壁上，欲更種，則如前沈水便生，誠爲奇物。蓋南產而耐寒。]

음 인식하였다고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키우면 중국 江南에서 나는 것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데, 제주에서 五色의 꽃이 피지만 바다를 건너면 색이 변하고 만다고 하였다.

金正禧의 문집에는 제주의 수선화에 대한 여러 편의 시문을 확인할 수 있다. 〈與權彝齋敦仁〉(『완당전집』 권3)에서 제주에서 나는 수선화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바 있다.⁵⁹⁾ 〈수선화가 여기나 저기나 곡으로 헤아릴 만하고 전묘의 사이에는 더욱 성한데 지방 사람들은 무슨 물건인지도 알지 못하고 보리 갈 때면 다 파버린다(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 田畝之間尤盛 土人不知爲何物 麥耕之時盡爲鋤去)〉(『阮堂全集』 권10)에서도 당시 제주에서 수선화가 흔한 존재였음을 기록한 바 있다. 김정희는 제주에서 수선화를 여러 차례 시에 담았는데 〈눈 오는 밤에 우연히 읊다(雪夜偶吟)〉(『阮堂全集』 권10)에서는 제주에서 나는 千葉의 수선을 玉玲瓏이라 한다는 사실도 부기하였다.

4. 맺음말

동아시아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국화, 석류, 모란, 철쭉 등 다양한 꽃의 교류사

59) “이곳에는 村里마다 한 치, 한 자쯤의 땅에도 이 수선화가 없는 곳이 없는데, 花品이 대단히 커서 한 송이가 많게는 十數花, 八九萼, 五六萼에 이르되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꽃은 정월 그믐, 2월 초에 피어서 3월에 이르러서는 산과 들, 밭두둑 사이가 마치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려 있는 듯, 또는 흰 눈이 광대하게 쌓여 있는 듯합니다. 이 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문 동서가 모두 그러하건만, 돌아보건대 굴속에 처박힌 초췌한 이 몸이야 어떻게 이것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이지거니와, 눈을 뜨면 눈에 가득 들어오니, 어떻게 해야 눈을 차단하여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토착민들은 이것이 귀한 줄을 몰라서 牛馬에게 먹이고 또 따라서 짓밟아 버리며, 또한 그것이 보리밭에 많이 난 때문에 村里의 장정이나 아이들이 한결같이 호미로 파내어 버리는데, 호미로 파내도 다시 나곤 하기 때문에 또는 이것을 원수 보듯 하고 있으니, 物이 제자리를 언지 못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또 千葉 한 종류가 있는데, 처음 송이가 터져 나올 때에는 마치 菊花의 靑龍鬚와 같아 서울에서 본 천엽과는 크게 달라서 곧 하나의 奇品입니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삼가 큰 뿌리를 골라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라 하였다.

가 있었고, 또 기후와 풍토에 따라 더욱 다양한 품종으로 개량되어 동아시아의 정원을 장식하였다. 특히 조선에서는 18-19세기 北京을 오가는 燕行을 통하여 水仙花, 秋海棠, 繡毬花를 위시한 많은 꽃을 수입하였지만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燕行錄 등 18-19세기 문헌을 통하여 어떠한 꽃이 어떠한 과정으로 수입되었는지 살폈다. 17세기 후반 金昌業 주변 인물에 의하여 水仙花, 秋海棠, 繡毬花 등이 수입되었지만, 널리 재배되지 못하다가 18세기 말엽 다시 燕行을 통하여 활발하게 수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9세기 한양 별열가의 정원은 이들 화려한 가을꽃으로 채워졌고, 시인들은 이를 시에 담아내었으며 화가들은 그림으로 그렸다.

그런데 조선시대 문인들은 우리말로 부르는 꽃이 정확하게 중국 문헌에서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았다. 앞서 본 대로 당구화 혹은 과꽃이라 부르는 唐菊을 두고 李圭景은 〈唐菊辨證說〉에서 그 정체를 두고 고민하였다. 이규경은 柳本學과 丁若鏞, 李書九에게 두루 자문을 구하였지만 繡菊(繡毬花), 錢葵(錦葵), 秋海棠이라 하여 그 설명이 모두 달랐다고 한다. 또 조선에서 이른 辛夷花은 중국과 동일하게 木筆花, 곧 붓꽃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개나리, 목련 등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蘭花가 아닌 蘭草는 보지 못하였기에 중국에서까지 가서 가짜 蘭草를 구입해오는 일화까지 생겨났음도 앞서 본 바 있다. 게다가 중국과 명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토양과 기후로 인하여 꽃의 외양이 상당히 달라지기도 하였다. 동일한 꽃도 중국과 조선에서 그려진 그림에서 모양과 색깔이 제법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게 복잡하니 꽃의 역사와 교류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인문학자뿐만 아니라 식물학자까지 힘을 합쳐야 올바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겠기에 이러한 글을 썼음을 밝힌다.

주제어 : 金昌業, 燕行, 花卉, 水仙, 秋海棠, 繡毬花

투고일(2013. 5. 5), 심사시작일(2013. 5. 8), 심사완료일(2013. 5. 24)

〈Abstract〉

Flowering Plants as Shown in the Records of Envoys Traveling to Beijing in the Late Choson Period

Lee, Jong-mook *

In the study of East Asian cultural exchanges, Flowering Plants has rarely been discussed. In East Asia, beginning in the early times of history, various flowers such as the chrysanthemum, pomegranate, peony, and royal azalea flowers were disseminated, and altered according to climate, to finish the gardens of late Joseon's literati.

Especially the 18-19th centuries saw importations of many flowers beginning with the Narcissus, Begonia, and Chinese Vibrunum during the the Envoys Traveling to Beijing, but detailed accounts are not available. This paper attempted to investigate what kind of flower was imported through what kind of means by using 19th century document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late 17th century, Narcissus,, Begonia, Chinese Vibrunum, etc. were imported by Kim Chang Eob's acquaintances, were failed to be cultivated, then were imported again around the late 18th century through Envoys Traveling to Beijing.

Key Words : East Asian cultural exchanges, Envoys Traveling to Beijing, Narcissus, Begonia, Chinese Vibrunum

*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